

타들어가는 논밭... 전남 봄가뭄 피해 속출

양파·마늘 등 잎마름 현상에 모내기 논 380ha 시들고 말라

큰비 안오면 농사 망칠 판...신안·진도 재난기금 추가 지원

“지금이라도 당장 비가 와야 합니다. 심어놓은 마늘, 양파가 모조리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 한운·사차마을 김재광(59) 이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마늘은 잎이 마르자 곧바로 마늘주머니들이 서둘러 수확에 들어갔으며, 양파는 물을 뿌려가면서 간신히 현상상태를 유지중이다.

전남도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가뭄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37만㎡의 논에 물 공급이 차단되면서 말라가고 있는 것으로 신안군은 파악하고 있다.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3691

만㎡의 밭에서도 잎마름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백인철 주무관은 “6월 초까지 50mm가량의 큰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모두 망치게 된다”며 “양파의 경우 물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은 품질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안군도 이미 모내기를 끝낸 논 4300만㎡ 가운데 1517만㎡가 가뭄피해 의심지역으로 분류됐다. 간척지 논 30만㎡는 이미 염해를 입거나 말라죽었다.

박경태 무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무안군 간척지 논이 경우 비는 오지 않고 가물면서 농업용수로 쓰는 물의 염도가 상승해 벼를 심는 농가 상당수가 염해 피해를

입어 올해 농사를 망쳐버렸다”며 “밭에 콩도 심어야하는데 하도 가물어 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걱정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가뭄피해가 심각한 신안군과 진도군에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21개 시·군에 가뭄대책비 15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신안군에 3억7000만원, 진도군에 1억2000만원을 이미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모내기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신안군에 2억원, 진도군에 1억원 등 3억원을 추가 지원해 포강(방죽) 개발과 하상 굴착,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남지역 강수량은 5월말 현재 154mm로 평년(423mm)의 36% 수준에 불과해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

다. 저수율은 61.3%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6월 말까지 큰 비가 없을 경우 내륙지역으로 가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29일까지 무안 운남(155ha), 강진 성전(62ha), 신안 자은(35ha), 보성 웅치(6ha) 등 258ha에서 물 마름 피해가, 무안 해제와 운남 97ha에서 위조 현상, 같은 지역 25ha에서는 고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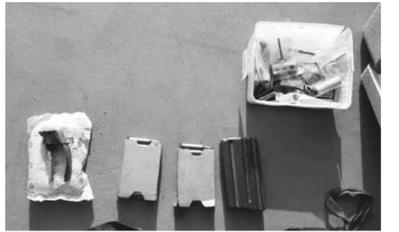
전남도는 지난 18일 ‘가뭄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6월 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용수 확보 대책과 저수지 준설, 용수시설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81억원을 긴급 지원해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담양 건물 옥상서 실탄 173발 발견

폭염탄 9발·부비트랩등...군·경 유출 경위 수사

담양군 담양읍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구경 5.56mm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과 군당국이 유출 경위 등을 합동수사하고 있다. 민간 건물에서 실탄이 다량 발견되면서 군이 실탄 분실 내지 도난 사고를 최근 또는 수년 전 파악하고서도 이를 찾으려는 시도는커녕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30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28분께 담양군 담양읍의 4층짜리 건물 옥상 캐비닛에서 실탄 173발이 건물주에 의해 발견됐다. 실탄은 연습용 수류탄 14발과 뇌관, 부비트랩, 연습용 폭염탄 9발 등과 함께 신문지에 싸인 채 가방에 담겨 있었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목욕탕과 여관으로 쓰이던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청소를 하던 중 상자에서 탄창에 들어 있는 실탄과 연습용 탄환 등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발견된 실탄은 M16·K1·K2 범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 등은 지난 1986년 부산 소재 풍산기업에서 생산됐으며, 현재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했다. 발견된 실탄 등이 군용이어서 경찰은 물론

을 31사단 측에 건네고 군과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군당국 안팎에서는 발견 당시 실탄이 2013년 발행된 지역 생활정보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3~4년 전 지역에 주둔지를 둔 군부대에서 누군가 고의로 이를 빼돌린 뒤 감춰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31사단 측은 “29일 경찰에게서 실탄발견 소식을 접하고 예하부대 실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담양에 주둔 중인 특전사 11공수여단 측도 “발견된 실탄과 우리 부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kg@kwangju.co.kr

5월 폭염특보 해제

오늘 비...더위 주춤

가뭄 해갈엔 부족

2년 만에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진 5월 폭염특보가 30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순천·광양·보성·구례·곡성 지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여수까지 확대됐다.



방독면 착용 이렇게

30일 광주 북구 동림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회 북구 민방위 경진대회’가 열렸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직장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 착용과 응급처치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겨루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0일 최고기온은 보성 35.4도, 광양 35.3도, 순천 34.6도, 여수 34.4도, 광주 32.3도, 곡성, 구례 각각 30.7도, 30.5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까지 6월~9월에 폭염특보를 발효했으며, 2015년부터 연중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폭염특보는 없었으며, 이번 폭염은 2015년 5월 이후 2년만의 특보다.

기상청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강기류에 의한 강한 열사와 함께 뜨거운 남서풍의 유입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뭄을 해결할 만큼의 큰 비는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1~5mm다.

기상청 관계자는 “31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다”며 “비가 그친 후 평년기온(최저 14~18도, 최고 23~28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금융기관 사칭 보이콧 일당 77명 적발

저금리 대출 미끼 47억원 쟁거

조직원 대부분 취업난 20~30대

금융회사를 가장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박모(43)씨 등 58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명은 수배했다고 30일

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364명으로부터 47억원을 쟁취한 혐의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고 7%에 이르는 대출이자율 최저 2%까지 낮춰주겠다고 속이고 100만~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총책 1명, 이사 2명, 팀장 12명을 비롯해 콜센터 상담, 대포계좌 모집, 국내 인출·송금 등으로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눴다. 조직원 대부분(74명)은 취업난을 겪는 20~30대이며, 일부는 대부업체에서 일했거나 다른 보이콧 조직에 가담한 경력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조직원의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일하면 월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 비행기 값, 체류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핏에 넘어가 외국으로 건너갔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건설사업 개입 이권 빼앗은 조폭 43명 적발

공짜술 마시고 협박도

광양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 구성·활동)로 지역 폭력조직 두목 최모(51)씨와 자금 조달책 정모(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조직원 41명도 같은 혐의로 범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해 피해 사업자들을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용역사업 이권을 빼앗고 후배 조직원을 갈로 협박하는 등 2012년 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2012년 봄 피해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확보한 토지 사용 승인 서류를 다수 감춰 별도 시행사를 선정,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직원들은 2014년 9월 3일 새벽 광양시내 주점에서 190만원어치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조폭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주점 업주들을 협박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2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1년 3개월간 조직원 53명 중 43명을 검거했다”며 “남은 조직원 검거와 지역 내 폭력조직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출장지서 ‘한판 붙자’며 직장 상사 폭행한 30대



○...평소 직장 상사에게 쌓인 불만이 많았던 30대 부하직원이 출장지에서 ‘한판 붙자’며 상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서행.

○...30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빌딩 1층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상사인 B(33)씨의 목과

복부를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는 등 폭행한 혐의.

○...A씨는 평소 회사 업무 때문에 B씨와 의견충돌이 잦았는데, 서울 회사에서 광주로 함께 출장을 왔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폭행한 뒤 경찰에게 “상사에 주먹질을 한 것은 잘못이다. 사과하고 화해할 시간을 달라”며 뒤늦은 후회. /전문재기자 ej6621@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승현리 (공장)



대지 1361평 최저가 657,000,000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최저가 885,000,000
건물 250평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224,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최저가 993,000,000
건물 1294평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정가 784,000,000

남구 서동 근린주택



토지 79평 최저가 553,000,000
건물 115평 감정가 553,000,000

운영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